

혈세 붓고도... 불편·불안한 광주 시내버스

민원 5년간 3757건... 정류장 통과·승하차 거부 많아

수송 분담률 34.7%로 감소... 교통사고도 매년 1000여건

중공영제로 운영중인 광주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의 사고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편신고 건수는 모두 3757건에 달했다.

2012년 439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이듬해 624건, 2014년에는 무려 1069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15년 803건으로 다소 줄었던 불편신고 건수는 지난해 822건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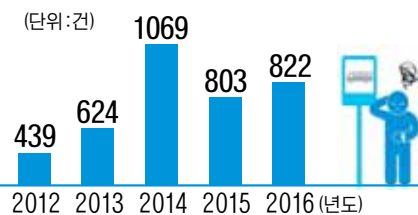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해 신고된 건수가 14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하차 거부(929건), 불친절(87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시는 2014년에 유독 민원이 많았던 것은 시내버스 파업과 여름철 불친절 등 계절적 요인과 신학기 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0년 38.0%에서 매년 줄어 2015년 35.0%, 지난해 34.7%로 떨어졌다.

불편 민원 말고도 시내버스 교통사고도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하는 등 줄지 않고

■ 광주 시내버스 불편신고 건수



있다. 2014년 953건에서 2015년 1033건, 지난해는 1021건에 달했다.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998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대당 1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대인사고가 647건, 대물사

고는 374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D운수가 385건, U운수는 215건으로 두 업체의 사고건수만 600건에 달했다.

시의회 김영남(서구 3)의원은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매년 1천여건에 달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직결돼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강화, 현장중심의 친절운동 캠페인 지속 추진,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술관이 된 천주교광주대교구청

24일 광주시 서구 삼촌동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열린 '제1회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에 방문한 시민들이 헨리관 지하 공간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28일까지 이어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산 낭비 논란에도...광주시의회 예술고 이전 추정 승인

시의원들 "부지 포기 막으려면 수용 불가피"...29일 심의

광주시의회가 광주예술고 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청의 단일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라는 지적에도, '면피성 발언'만 한 채 원안대로 통과시켜 반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자)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장을 비롯, 문상필·김영남·심철·김용집·문태환 등 6명의 시의원은 지난 22일부터 옛 전남도교육청(면적 3만6938㎡) 부지를 매입, 광주예술고를 이설하겠다는 취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오다가 이날 전격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동의안 통과 이후 전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34억6000만원을 비롯한 '2017년 제 1회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시의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금액 346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을 문제삼았다.

조정금액의 경우 해당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다.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학교부지라면 턱없이 높은 금액이어서 '100억 이상 바가지

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교육청의 부적절한 행정과 예산 낭비 요인을 파악하고도, 그대로 통과시켜 직무를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원들은 '5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부지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을 감안,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육문화위원회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구명조끼 유해 일반인 이영숙씨 추정

세월호 3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된 유해는 일반인 미수습자인 이영숙씨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수습된 유해의 옷에서 이씨의 신분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2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온전한 유해의 옷에서 이영숙씨의 신분증이 나왔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옷에서 발견된 신분증이 지난 22일 수습된 유해의 것인지 여부는 국과수 DNA 분석을 통해 감시 결과와 나와야 최종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인 객실이 있는 세월호 3층에는 이영숙씨와 권재근씨, 권씨의 아들 혁규군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해질 19:37 달맞이 05:00 달질 18:52

무더운 '봄'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6/29	보성	맑음	14/28
목포	맑음	17/25	순천	맑음	17/30
여수	맑음	18/28	영광	맑음	13/26
나주	맑음	13/29	진도	맑음	16/26
완도	맑음	16/28	전주	맑음	15/27
구례	맑음	13/29	군산	맑음	15/24
강진	맑음	14/28	남원	맑음	13/28
해남	맑음	13/28	홍산도	맑음	16/23
장성	맑음	12/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1.0~2.0
남해	안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1.0~2.5
남해	안바다(동)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안바다(서)	북서~북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안바다(남)	북서~북	1.0~1.5	서~북서	1.0~2.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피부질환

◇ 주간 날씨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6/1(목)
☀	☀	☀	☀	☀	☀	☀
10/22	13/28	15/31	16/32	17/32	7/30	17/28

“근로계약 11개월 아닌 12개월로 해야”

광주 초등 스포츠강사들 교육청서 기자회견...처우 개선 촉구

광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육청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노조)는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와 스포츠강사들은 이날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다른 교육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수당 지급 문제 등을 해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한 달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한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채용돼 근무하는 비정상적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12개월 단위로 계약, 임용할 것 ▲교육공무원과의 수당 지급 차별 금지 ▲같은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인부 사망’ 해남 문화제 발굴 현장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문화제 발굴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경 문화제 발굴 사전조사에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m 높이의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중인 일용직 노동자 박모(76)씨가 숨지고 안모(74)씨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목포지청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작업 중지 및 감독 실시 명령을 내렸다. 사고원인을 조사 후 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도 대한보청기가 필요합니다

TV · 전화 ·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대한보청기

1+1 무료!!

구입 시 전 제품해당

특별이벤트
무료!! 배터리 5년간 무료!!
A/S 특별 5년간 무료!!
(보청기 구입 1+1 무료, 모두 적용)

맞춤렌탈 (표준 가입비 면제) 보조금 (최대 131만원)

가슴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료방문 홈 서비스!! *청각장애금 해당자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50% 특별 **대할인**